

대한민국 독서대전 특별전 펼쳐진다

전주 연관·유명인사 추천 책·작가 친필 원고 등 전시... 내일부터 9월 3일까지 공예품 전시관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전주와 연관있는 책과 유명 인사들이 추천한 책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독서축제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특별 전시회'를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갖는다.

전시회에서는 한국의 꽃집 전주가 권하는 책과 글, 유명인이 권하는 한권의 책 한 단어 한 문장 한권의 책이 그대에게 닿기까지, 문학의 분향 전라북도 등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우선 전주가 권하는 책과 글을 주제로 한 코너에는 전주시가 발간한 책과 전주를 소개한 책이 전시된다. 또 유명인이 권하는 한권의 책의 경우 전주 출신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각 분야 유명 인사들이 추천한 책을 입체적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한 단어, 한 문장 한권의 책이 그대에게 닿기까지 전시에서는 작가와 출판사 독자에게 책이 연결되는 각 과정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작가들의 친필 원고 집필모습을 담은 사진 등이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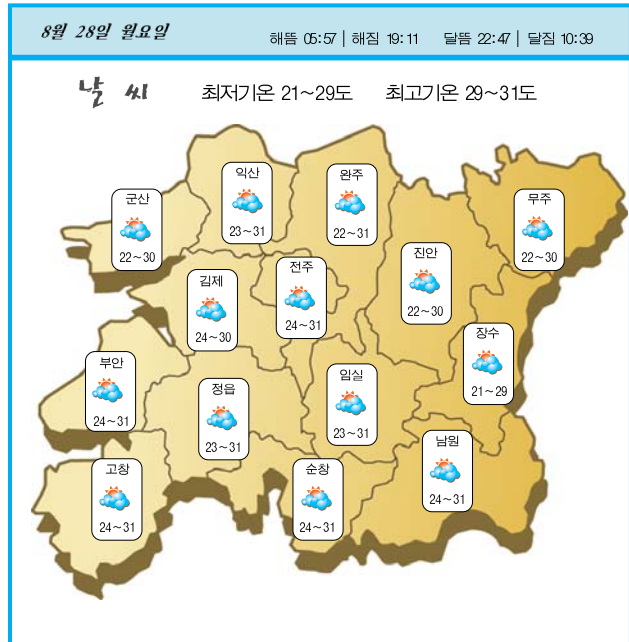
'문학의 분향 전라북도' 전시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의 문학과 문학인, 시비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문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북의 문학 지도를 제작해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안산도서관 관계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찾아주시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특별전시회를 통해 독서축제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힐링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전라북도 문학의 힘을 확일 할 수 있는 전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230여 공공기관, 출판·독서·교육계 등 독서문화와 관련된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축제로, 행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전을 비롯한 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독서대전은 기획전시회를 시작으로 고은 시인의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을 주제로 한 기초강연을 비롯한 공연, 행사, 강연, 체험, 학술 토론회 등 28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유학생 취업 위한 현지 연수 '호응'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중국 유학생 17명 상해 취업연수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 유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우수한 중국 유학생을 선발, 중국 현지에서 취업 연수 기회를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단은 중국 유학생들의 취업을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17명을 선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해 현지에서 취업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 학생들은 중국 상해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우리은행과 CJ 그룹,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SPC그룹, 농심 그리고 전라북도 상해 대표처 등을 찾아 기업 소개 및 중국 현지취업관련 집중 교육을 받았다. 기업 인사담당자와 임원들을 직접 만나 중국 내 취업 인재상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가상 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는 법 등 취업 전략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전라북도 상해 대표처 김미정 소장은 전북지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으며 격려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취업연수 2기에 참가했던 사자목(전주대) 학생이 대표처에 취업한 사례를 소개하며 도내 유학생들의 중국 진출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단은 중국 유학생들의 취업을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17명을 선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해 현지에서 취업연수를 진행했다.

이런 프로그램과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명숙 추진위원장은 "올해로 3번째 진행되는 이번 취업연수가 전북의 대표산업인 농생명 산업과 매칭이 되는 글로벌 식품산업분야 기업과의 교류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됐다"며 "도내 유학생 중 비율

이 가장 높은 경상계열 학생의 취업확대를 위해 취업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 학생 유치 및 취업으로 연계되는 좋은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농생명-한문화(K-Culture)융합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올해 4년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체 현장실습 등을 추진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인유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인학생의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군산대 나의균 총장 국제교류 활성화 위해 중국 대학 방문

군산대학교 나의균 총장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8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방문 목적은 신·편입생 유치 및 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 홍보를 위한 것으로 군산대 이성룡 기획처장, 최상훈 학생취업지원처장, 국제교류교육원 전임연구원, 조선공학과 재학생 등이 동행한다.

방문교는 중국 길림성에 있는 동북전력대학교이고, 방문단 일행은 현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모집 유학설명회를 개최

할 계획이다.

군산대학교는 유학생들의 질적 향상 및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위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들의 자부심 및 애교심을 고취하기 위해 군산대학교에서 수학 한 후 모국으로 귀국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 동문인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 군산대는 중국 청도에서 중국인유학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학생동문인의 밤을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향후 유학생동문인의 밤 개최 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군산=장현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전통시장 장보는 날' 행사 실시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25일 청원유관가관 및 자생단체 150여명과 함께 모래내 알짜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는 날' 행사를 실시했다.

덕진구에서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매일 넷째주 목요일에 전통시장 장보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이 여덟 번째 장보는 날로 직원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시장 상인회원과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한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형식적인 일회성 장보기

행사가 아닌 사전에 구입해야 할 물품 목록을 작성해서 매일 장보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인들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보기와 더불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덕진구 관계자는 "전주시민들이 5% 할인되는 은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알뜰한 장보기도 하고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

자녀 4명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업내용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